

순정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태 16, 24)

연중 제22주일

제1독서 : 예레 20, 7-9

제2독서 : 로마 12, 1-2

복 음 : 마태 16, 21-27



하느님의 일(?)



김영태 신부 / 성심여자중학교

하느님 일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 일은 재쳐놓고... 우선 먹고 사는 것 걱정하는 일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말이 쉬어 먹고 사는 일이지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루라도 먹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니, 먹기위해 힘든 것들을 겪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기왕에 말을 한 김에, 돈 걱정 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조금만 움직이려해도 돈 돈 하니, 내가 돈 때문에 사는건지 아니면 돈이 나를 가지고 사는건지 알 수가 없다. 어디 이런 것 뿐이던가!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지...! 오죽하면 사는 것 그 자체가 죄이고 고통이라는 표현을 했겠는가!

하느님 일만을 생각한다? 그래, 얼마나 좋은가! 가난한 사람들 마음껏 도와주고 성당 짓는데 돈도 듬뿍내고, 마음껏 시간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오래하고... 하지만 이게 어디 가능한가? 이런 것도 다 돈 있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일단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나를 움아매고 놓아주질 않으니, 마음은 간절해도 그저 꿈으로나 간직하고 살 수밖에...

정말 불가능할까...? 정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또 내가 사는 것이 정말 하느님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가로막는 마귀와 같은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느님의 일은 단지 죽는 일이다, 베드로가 혼이 난 것은 그것을 막으려 했던 때문이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 죽는 일이라는 것이다. 내 가족을 위해 내가 매일 죽고, 또 그렇게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매일 죽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느님의 일이다. 물론 베드로가 혼이 난 것은 '우리는 죽지 맙시다!'라고 떼를 썼기 때문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거룩하다, 비록 그 고통이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다시 말해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느님의 일이 분명하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죽이고 내가 살려한다는 것임을 오늘 복음은 말하고 있다. 나 자신의 고통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다른 이의 고통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이의 고통을 통해 나를 살리려 한다면, 그래서 나는 살고 다른 이를 죽이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다.

하느님의 일...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일상사(日常事)가 바로 하느님의 일이다. 또 다른 이의 삶을 거룩한 하느님의 일로 받아 들이는 것이고...



주방되어야 할 ‘돈선거’

모 보 일(즈가리아)

‘30당(當) 20락(落)’설이 분분했던 4·11 총선거가 말 그대로 ‘돈선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총선비용에 대한 실사를 실시, 선거비용 신고규정을 위반한 20명의 현역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아직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재판절차가 남아 있지만 우리 선거사에 이 처럼 현역의원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해 당락을 위협받기는 처음있는 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총선비용에 대한 실사에 나섰다. 선관위 직원 1천4백7명과 국세청 조사전문직원 3백2명 등 연인원 8만2천명이 동원됐다. 조사대상은 4개 정당의 중앙당과 후보를 추천한 지구당 및 지역구후보 1천3백89명 전원 실사요원들은 유급 선거운동원이나 동책·반책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금품 수수여부를 캐묻는 등 살살이 훑었다. 현역의원 고발숫자나 전체 적발건수를 실사반원들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집안단속을 철저히 했고 비밀작업실에서 낮보다 밤에 작업하는 올빼미 실사를 강행했다.

이 결과 전체후보의 81%가 선거비용 신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는 고의성이 없거나 사소한 계산잘못 등으로 밝혀졌지만 신고누락액이 1억5천만원에 이르는 후보도 있었다.

당초 선관위가 실사에 나설 때만 해도 국민들 거리가 기왕의 관행대로 그럴 저력 넘어가는 일과성 과정으로 여겨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 당선자들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되자 당황, “지구당 실무자와 선관위 직원간에 발생한 오해”라는 등 해명하느라고 바쁘다.

“이 나라 최대의 악은 선거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잘나고 애국심이 강해도 돈없이 의원은 되지 못한다. 일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881년 7월 1일 영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법무장관이자 의원인 헨리 제임스는 선거개혁을 외쳤다. 당시 영국 선거는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이 판을 쳤다.

그러다가 영국은 선거비용 실사제도와 후보 연좌처벌제도 등을 제정하면서 달라졌다. 실사에서 적발된 의원들은 가차없이 당선을 무효화 했고 이 러기를 몇 차례 거듭하면서 ‘돈선거’ 추방에 성공, 모범적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게 됐다.

우리도 늦지 않았다. 이 번에 실사된대로 올바르게 처리한다면 우리에게 선거문화도 달라질 게 확실하다. 선거 때 돈을 쓰면 반드시 밝혀지고 말며 그리되면 당선무효는 물론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돈선거’ 선거풍토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번이 바로 그 시기다 이 나라 50년사를 얼룩지게 한 돈선거와 불법선거를 추방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건을 맡아 처리할 검찰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국민들의 눈만 의식해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선관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에서 “별일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어 하는 말이다.

검찰은 해당 지검 지청별로 수사에 나서 이 달 중순까지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이 달 중순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 사건처리는 구속 기소·불구속기소·기소유예·무혐의 등 4가지로 분류, 늦어도 내년 10월11일까지 재판을 끝내 당선무효여부를 판가름 내야 한다.

숲정이 산책



自繩自縛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문테레사(데레사) / 전동 천주교회 중3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순간도 많았고 게다가 들도 없는 추억거리가 많아져서인지 수련회를 다녀와서도 한 2~3일은 수련회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내 마음은 큰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 난 속으로 몇 번이나 '야호' 소리를 외쳤는지 모른다.

여러 곳의 성지 순례를 돌아보며 그 성지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며 난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순교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백지사터'였다. '백지사터'는 고문 성터였는데 얼굴에 물을 묻혀 창호지를 붙여가며 주님을 배교하라고 강요한 곳이었다. 그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려했던 순교자들의 신앙심을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심은 비교도 할 수 없었다.

우린 걷기 시작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끈적

거리고 다리는 마비가 될 정도로 아파 난 몇 번이나 뒤쳐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마음속으로 포기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며 힘들게 걷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이 길은 옛날 우리 신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순교한 시신을 업고 천호성지까지 걸어갔던 길이었음을 알려 주었을 때 난 새삼 부끄럼을 느끼게 되었다.

와! 정말 힘들었지만 값진 하루였다. 하늘에 충충히 박힌 아름다운 수십억개의 별들이 그 동안 주님을 위해 목숨바치신 순교자들의 얼굴처럼 보였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로 보냈다. 우리들의 소망을 받으신 하느님은 지금도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는다.

이 수련회를 통해 하느님께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께 감사를 드리며 더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 것을 다짐해 본다.



꽃동네에 다녀와서

이니나(실비아) / 어양동 천주교회 고1

"애들아 우리 성당에서 꽃동네 간다" 어쩔 으쭉거리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꽃동네에 다녀 온 친구가 "그곳 정말 힘들어, 냄새도 많이 나고 대소변을 못가리는 분들이 태반이야"하며 안됐다는 눈빛으로 날 바라본다. 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청소도 하기 싫어하는 난데..." 이런 두려움을 안은 채 나는 꽃동네로 향했다.

내게 맡겨진 곳은 인공 자애 병원이었다. 이곳은 정신이상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내는 곳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지금까지의 나와 다른 나를 창조하는 거야, 하며 두려움을 삭혀 갔다.

아침 5시30분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장실 청소였다. 청소하기 전에는 냄새 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청소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신났다.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가지니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쉽고 재미있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언니라고 부른다. 이 말에는 서로를 언니처럼 존중해 주자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자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분들에게 다가 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조금씩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 나는 '사랑한다는 말은'이라는 노래를 계속 불렀던데, 그들과 헤어진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왔다. 이들이 "언니 또 와"하며 손을 흔들던 모습은 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나는 '왜 살아야만 할까'하고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꽃동네에서 답을 찾았다. 안도현 씨의 「언어」에 보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경이 되어 다른 이를 살게한다는 것. 앞으로 나는 꽃동네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살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특집 순교자 성월

성지 순례를

해마다 9월은 한국 교회가 그 초석으로 삼고 있는 순교자들을 기리는 달이다.

이 땅에는 많은 성지가 있다.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린 순교 지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증거하고 살아간 분들의 삶이 배어 있는 삶의 땅이 있고, 순교자를 기리는 믿음의 땅이 있다. 이곳을 순례하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를 깨달아, 오늘의 내 삶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스도교 신앙인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성지 순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보았을 것이고, 순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가까이서 천호성지에서 멀리는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순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에서도 순례의 동기나 목적 또한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교우들을 접하다 보면 순례자들에게 있어 다양한 순례의 동기나 목적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공통적인 순례에 대한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그것은, 오늘의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의식 속에 성지 순례는 생활의 여유 속에 이루어지는 여행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순례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없이 행해지고 있는 순례와 여행 삼아 이루어지는 순례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신앙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지 순례도 세태를 따라가는 것 같다. 요즈음에 와서 성지 순례의 자세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보는 순례', '즐기는 순례'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간적 가치는 훈련과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아는 만큼 느낀다고 한다. 느낌이 없이 태도와 행동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기 전에 목적지에 대한 사전 교육이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 생각하고 느끼기 위한 묵상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여러 곳을 순례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성지에서 사목하고 있는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성지 순례의 기본 자세가 안되어 있어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고 한다. 관광인지 순례인지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지에 콩 볶아 먹듯 들렀다가 다음 코스인 관광지로, 반은 순례이고 반은 관광하고 이런 식의 순례객들을 보면, 구경을 하는 건지 참배를 하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올바른 성지 순례가 되기 위해 우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차량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성지 순례를 잘 하려면 피정하는 마음으로 하자. 피정하는 마음이라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것이다. 많은 본당에서 성지 순례를 하루 만에 하기 때문에 한나절 버스 타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미사 봉헌하고 성지 소개하면 오후가 된다. 그러면 점심 먹고 성지를 한 번 돌아보고는 떠날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 서정우 · 이혜경(글라리아)
- 북진주전화국 ↔ 법원 중간
- ☎ 253-3232, 254-2631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0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분 특별우대
- 전산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 구서중로타리 동서중권 맞은편
- ☎ 252-0103~4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แกน,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 김태우(알폰소) · 황진숙(안젤라)
- ☎ 88-7717~8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국비생 모집 ·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영동3가 7-1
☎ 841-2496, 855-8653

순례답게

채비를 하게 된다. 성지에 머무는 시간은 서너 시간밖에 안된다. 이런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순례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차에서 보내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겠다. 성지에 대한 안내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은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간단다면 성지 순례를 통해서 신심이 돈독해 질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도하는 분위기이다. 성지에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성지에 왔다면 지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 준 우리 선조들의 그 놀라운 신앙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 없이 사람들이 놀러 간다니, 이왕이면 썩 먹고 알 먹자는 식으로 성지도 가보고 관광도 하려니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단체들이 성지 순례를 하나의 연례 행사 치르듯이 한다. 또 성지 순례는 갈 때와 성지에 도착하기까지이고 점심을 먹고부터는 아예 놀려고 작성하는 것 같다. 점심 먹고는 술먹고 적당히 취기를 올린 다음, 돌아가는 차안에서는 니나노판이 된다. 그 동안 좀 숙연했던 분위기 마저 놀자판에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고 만다.

교회가 순교 정신을 계승하지 못

하면 시들어 버린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듣고 배운대로 의심없이 하느님을 믿었고 또 믿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까지 바쳤다. 지금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한다.

순례에 임하는 자세는 순교 선열들에게서 뭘 배워야 할 것인지. 기도와 희생과 극기와 봉사의 순교 정신을 본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지 성역화의 의무를 지닌 성지의 주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결코 관광이나 야외 유흥이 아니라 순례를 신심행사로 생각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가 순례를 계획한다면 순례에 임하는 순례자로서 다음 몇 가지 점들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가짐을 되돌아 보도록 하자.

*순례자는 신앙을 갈구하고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순례자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들이다.

*순례자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순례자는 하느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사람이다.

요심이 (1201) 김병오



초대합니다
송천동 제2성전 신축 바자회

- 일시 : 9월12일(목)~15일(일)
- 장소 : 송천동 서호아파트 앞 서호주정(주) 서립원
- 주최 : 천주교 송천동 성당 제2성전 신축 추진위원회 ☎ 74-1004

말씀 대피정

- 일시 : 9월3일(화) 전 9시30분 (매월 첫째주 화요일)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회비 : 5,000원 (중식 제공)
- 주최 : 베소라 성서연구회 ☎ 85-4978

성모 영보수녀회 성소 모임

- 일시 : 매월 둘째주일 오전 11시
- 장소 : 나산 공소(전남, 함평군 나산면 나산리671)
- 문의 : (0615)23-8213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회 전국 성소피정

- 일시 : 9월21일~22일 후 5시
- 장소 : 광주 일곡동 수도원
- 참가비 : 3,000원
- 연락처 : (062)571-5004, 8004 (02)990-1004, 2004

예수 성심전교수녀회 성소 피정

- 일시 : 9월7일~8일 후 5시
- 장소 :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 본원
- 참가비 : 10,000원
- 문의 : (051)581-3103~4

직원모집(성심원) 프란치스코 수도회

- 생활보조원 및 조리사 : 〇〇명
- 기간 : 9월 6일까지
- 주소 : 경남 산청군, 읍내리 91 성심원
- 문의 : ☎(0596)73-6966 FAX : 73-6967

사목단상

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김영수 신부 / 필리핀 한인성당

오늘 시장에 나간 길에 튼튼하고 질 좋은 여행 가방을 하나 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닐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셈이다. 신부의 삶이란 평생을 역맛살 뜯 사람처럼 짐 싸 들고 이사 다니는 게 팔자 라지만 신부가 되어 처음으로 본당 소임을 맡아 정붙이며 살던 곳을 떠나는 마음은 아쉬움이 앞선다.

외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분위기로 나뉘어지는 것 같다. 한 부류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의 분위기와 향수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이왕 외국에 나온 김에 이래저래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자기 삶을 즐기다가려는 사람들도 꽤 많다. 특히 마닐라는 주로 사업상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서 후자의 분위기가 좀 강한 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공동체가 별로 신나는 일없이 맥이 빠져 있게 마련인데 그 원인은 신자들이 '공동체'라는 개념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필리핀에 와서 느낀 공동체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썰렁한 것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빌려쓰는 성당에 모여 주일미사를 후딱 해치우고 십분도 채 안되어 모두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나면 일주일 내내 신자들이 서로 만나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런 썰렁한 분위기를 화기 넘치는 생동감 있는 공동체로 바꿔 놓는 일을 우선으로 노력했다. 제일 먼저 신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일이었다. 맨송 맨송한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참 맛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성서'였다. 매주 수요일에 모이는 성모회를 중심으로 성서 백주간 모임을 시작했다. 신자들도 바라고 기다리던 터라 모두가 기뻐하였다.

차츰 성서에 맞들이면서 신앙생활이 자기 자신

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필요에 응답하는 일임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후 본당 수녀님에 의해 또 다른 성서 모임이 시작되었고 각 지구별로 조그만 기도와 성서 나눔을 위한 모임들도 생기게 되었다. 성서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주일 미사 후에 서로 나눔의 자리도 마련되어 가고 본당에서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분위기가 되어 갔다. 최근에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본당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성전 건립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스로 성전 부지를 마련하는 큰일을 해냈다. 이제 남은 일은 서로 마음을 모아 자랑스런 한인 성당을 건립하는 일이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섭리하심을 믿는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남은 더 큰일도 너끈히 해 낼 수 있음을 믿는다.

신자들과 함께 성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말씀의 위력'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내 자신의 변화'를 체험하면서였다. 사실 공동체 분위기가 썰렁했던 것은 내 마음이 썰렁했던 탓이었다. 내 자신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썰렁한 분위기를 닦아며 외롭고 힘든 교포사목을 해야 했을 것이다. 신자들이 각박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었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3년 동안 신앙 안에 서로가 나눈 정들을 감사하며 나는 지금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있다. "신부를 가르치는 것도 신자요, 신부를 변화시키는 것도 신자들이다." 새로운 임지로 떠나는 것은 또 하나의 도전이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어디에서든 나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신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김회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 회 민(투가)

남전주 전화국 (구 영광주유소자리)
☎ 226-7600~1

한양 내과의원

(구) 박애의원
자동차 적성검사
부설: 물리치료

김석주(토마스)

☎ (0658)45-3769

연지곤지 웨딩 이벤트

드레스 35만~40만원
<신부화장, 부케, 폐백옷 무료>

유 순 이(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 (주)82-2347 (야)225-5755

겔로이 · 켈트하우스

· 스텐실, 플레이트, 퀼트(손바느질)공예
· 완제품, 반제품 판매 및 수강생 모집

조 미 현(올리안나)

서신2지구 성원APT 정문 앞
☎ 72-5522

교구소식

- ❖ 교구장 대회년 주교 특별위원회 참석
 - 때 : 9월5일~6일
 - 장소 : 대구
- ❖ 평화동 성당 성전 신축 기공식
 - 때 : 9월8일(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평화동 성당
- ❖ 구역(반)장 교육
 - 9월2일(월) 오전10시, 윤희관 (동·북 전주지구)
 - 9월4일(수) 오전10시, 윤희관 (서·남 전주지구)
 - 9월5일(목) 오전10시, 신동 성당 (이리·익산지구)
 - 9월6일(금) 오후2시, 요촌 성당 (정읍·김제지구)
- ❖ 초등부 교재연수
 - 때 : 9월8일(일) 오후1시
 - 장소 : 윤희관
- ❖ '성서교실' 개강
 - 9월5일(목) 전주
 - 9월3일(화) 군산
 - 9월2일(월) 익산 (오전9시30분 미사로 시작함)

- ❖ 사회복지 월레미사
 - 때 : 9월2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 ❖ 예·신 월모임
 - 때 : 9월8일(일) 오후1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 ❖ 가톨릭 문우회
 - 때 : 9월7일(토) 오후3시
 - 장소 : 부안 성당
- ❖ 수녀연합회 성서통독피정
 - 때 : 9월9일~10일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참가비 : 20,000원
- ❖ 성모기사회
 - 때 : 9월7일(토) 오전10시
 - 장소 : 효자동 성당
- ❖ 푸른군대 피정
 - 때 : 9월5일(목) 오전10시
 - 장소 : 덕진 성당
- ❖ 기억할 사제
 - 2일 : 강윤식(베네딕도) 26주기
 - 오기순(알베르토) 3주기

- ❖ 축! 영명
 - 4일(성모이세) 이상섭, 송영진 신부님

■ 권해드립니다 ■

· **씨뿌리는 사람들**
 성민호 신부 / 12,000원 / 빅벨
 강론 모음집이다. 전례 시기별로 복음을 주제로 한 이 강론집은 모두 616쪽에 달한다. 대림 제1주일에서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가·나·다해로 반복되는 3년 주기의 모든 주일과 축일의 강론을 망라하고 있다.

· **사해부근에서**
 엔도슈사쿠 / 이석봉
 6,000원 / 바오로딸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면서 예수를 만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소설화한 것이다. 기적을 기대하고 이기적인 우리에게 너무도 인간적인 하느님의 마음과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오존 경계주의보

무스, 분사식 해충약 등 각종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프레온 가스를 내뿜습니다. '꿈의 화학물질'로 여겼던 프레온 가스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오존층에 구멍이 뚫려, 이곳으로 해로운 자외선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어컨, 냉장고 등의 대형화 추세를 줄이고 스프레이, 무스 등의 사용을 자제 합시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태우는 쓰레기 양을 줄이자.
- 아연 만을 추구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제품은 사지 말자.
- 무스, 해충약, 페인트 등을 사용할 시에 분사식은 사용하지 말자.

원평 성당에서 직접 제배한

꿀 배

- 가격 : 특 40,000원(10kg)
 大 35,000(10kg)
 中 30,000(10kg)
- 구입문의 : (0658)43-0880~1
 43-4236

선경 컴퓨터 타운

삼성, 삼보, SKC
 컴퓨터 총판

이 병 균(프란치스코)
 정 미 선(글 라 라)

평화주공 1단지 입구
 ☎(代)231-2237

임혜연 웨딩샵

드레스, 예복 대여전문점
 메이크업, 신부화장

임 혜 연(엘리사벳)

전통백화점 옆 에스프리 2층
 ☎ 85-5041

현대체육사 의료기

퀘스트 등산점, 헬스기구, 무용복, 에어로빅, 수영복, 게이트볼, 줄리닝, 유니폼, 선물기념품, 상패, 혈압계 등

김 병 섭(프란치스코)
 김 현 숙(까리따스)

창인동 천주교 상가
 ☎(0653)841-6706, 842-8949

기아·아시아 딜러 영업소

송 수 환(다니엘)
 이 영 자(아녜스)

시트카바, 밴딩, 적제합보장등 10여가지 선물,
 신차분보유 중고차감정 및 이전,검사,폐차대행

☎(0652)225-0045
 (전화문의 환영)

진도 패션 전주점

모피, 무스팡, 남성복 전문매장

- 9월20일까지 세일(50%~20%)
- 연중무휴
- 손헌성(바오로) · 정정남(가타리나)

전주시 교사동(구)역전오거리 천보당
 ☎ 231-2005~7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F A X 82-9664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1. 구역(반)장 교육: 4일(수) 전 10시, 윤호관
2. 성시간: 5일 저녁미사 후
3. 병자봉성체: 6일 오전중 *사무실에 신청바람
4. 사목회 상임: 6일 후 8시, 사랑방
5. 모임: ①울뜨레야, 기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4일 어머니미사 후
③반희장 모임-5일 전 10시 30분
④장우회, 대건회-8일 공식미사 후
6. 금주 전례: 새벽-중노1구역, 저녁-중노2구역
공식 안내-장우회, 해설-이봉기
독서-①이용관 ②서성남
신자들의 기도-최철영, 문화형
봉헌-장성복 부부
7. 차주 전례: 새벽-중노3구역, 저녁-중노4구역
공식 안내-대건회, 해설-이수원
독서-①정영덕 ②김경자
신자들의 기도-서용문, 정경옥
봉헌-박춘근 부부
8. 금주 청소: 남노 2,3반
8. 차주 청소: 남노 4,5반

□ 지난해 봉헌금: 1,190,170원 □ 교무금: 2,057,000원

*** 서화동** 주임신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증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1. 초중고 교리 개학: 8월31일(토)
* 부모님들의 관심 바람.
2. 세례식: 21일(토) 후 7시, 본당
* 통신교리자는 신부님, 수녀님께 연락 바람.
3. 선교세미나: 22일(토) 후 2시, 본당, 교재대-2,000원
* 전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람.
4. 금주 모임: ①꾸리아-오늘 후 2시, 강당
②사목회-3일(화) 후 8시30분, 회합실
③자모회-5일(목) 레지오 회합후, 회합실
5. 차주 모임: ①프란치스코삼회-8일(일) 후 2시, 강당
②성심회-11일(수) 전 10시30분, 회합실
③울뜨레야-12일(목) 후 7시30분, 회합실
6. 금주 전례: 공식미사 해설-김중호(프란치스코)
독서-①강석주(베드로) ②정옥순(율리안나)
7. 차주 전례: 공식미사 해설-김진애(가멜라)
독서-①황현규(레오) ②이덕자(로사)
8. 청소 안내: ①금주-성지의 동정녀Pr.
②차주-사랑하을 어머니Pr.

□ 지난해 봉헌금: 979,100원 □ 교무금: 1,126,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박상기

- ◎ 9월은 순교자 성월
1. 복자 성서교실: 3일(화) 오전반 10시, 저녁반 8시
성서 봉독-창세기 12~25장
 2. 성지 순례: 15일(일) 전 8시30분 출발, 광주 황새바위, 정양
줄무덤, 갈매꽃 3. 제1회 성체 현양대회: 13일(금) 천호 성지,
전 10시30분~후 1시 * 전신자 참석 바람.
 4. 성소후원회비 납부 주일: 오늘입니다.
 5. 오기순(알벨도) 신부님 3주기 미사: 2일(월) 새벽미사 후 언도
 6. 구역반장 모임: 4일(수) 전 10시, 윤호관
 7. 성체 강복: 5일(목) 저녁미사 후
 8. 금주 모임: ①성우회, 대건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저녁미사 후
 9. 주간 모임: ①구역분과회-3일(화) 전 10시
②자모회-5일(목) 전 10시 ③여성분과회-7일(토) 전 10시
 10. 차주 모임: 요셉회, 꾸리아, 청년회
 11. 북한 수재민을 위한 성금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첸시오회-3만, 나유순 2만, 안정혜 1만, 이갑진 5천.
 12. 금주 전례: 해설-최환희, 독서-구분창 부부
봉헌-김영기 가족
 13. 차주 전례: 해설-허정식, 독서-정승관 부부
봉헌-손승환 가족
 14. 성당 청소: 9월 7일(토) 성모성년Pr., 사랑하을 어머니Pr.
 15. 감사헌금: 3만원(황선택)
- 지난해 봉헌금: 694,350원 □ 교무금: 1,675,500원

*** 상관** 주임신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실
F A X 85-6652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 ◎ 9월은 순교자의 성월: 순교정신을 본받아 신앙을 증거합니다.
◎ 교무금 납부주일: 매월 첫주입니다.
1. 금주 모임: ①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공식미사 후
②사목회-7일(토) 후 7시30분
③성우회-3일(화) 후 7시30분, 성당
 2. 차주 모임: 안사회
 3. 3차 구역장 교육: 4일(수) 윤호관, 10시
1,2차 참석 못하신 분은 꼭 참석요함.
 4. 성당 청소: 금주-천사들의 모후Pr.
차주-구세주의 모친Pr.
 5. 금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강덕용 ②김순희
봉헌-박용선 가정
 6. 차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김완석 ②이석남
봉헌-양수환 가정
- 지난해 봉헌금: 361,600원 □ 교무금: 239,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송영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환

- ◎ 보좌신부님 영명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월 4일
*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 ◎ 사무실 준공 축복식: 1일 공식미사 후
1. 금주 모임: ①성가정회-전 11시
②제속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③에덕의 모후 꾸리아-후 3시
④요셉회-후 6시
⑤울뜨레야-후 8시
 2. 주간 모임: ①단불회-3일 전 10시
②베애타회-4일 전 11시
③엘리사벳회-4일 전 11시
④여성단체 임원모임-4일 후 3시
⑤성모성심회-5일 후 3시
 3. 제3차 구역(반)장 교육: 4일 전 10시, 윤호관
 4. 성체강복 및 조배: 5일 전 10시
 5. 병자봉성체: 6일 후 2시
 6. 자모회 정기총회: 7일 전 9시
 7. 감사헌금: 일심단(익명)-감사합니다.
 8. 차주 모임: ①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②사목회-후 8시

□ 지난해 봉헌금: 2,384,430원 □ 교무금: 1,687,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녀원 232-5004 주임신부 이상섭
F A X 232-5003 사무실 232-5005 사목회장 강삼근

- ◎ 성전신축 기공식: 8일 10시30분, 장소-신축부지
◎ 본당 신부님 영명 축하시: 오늘 공식미사 후
영명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영육간 건강하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목회 상임위원 회의: 3일 후 8시, 회관
 2. 구역반(장) 교육: 4일 윤호관
 3. 성시간 성체 강복: 5일 저녁미사 후
 4. 오늘 모임: ①평화의 여왕Cu.-후 2시 30분
②성지회-공식미사 후
 5. 주간 모임: ①구역반장연수-3일 전 10시 30분
②부녀회-6일 어머니미사 후 ③성모회-7일 전 10시
 6. 차주 모임: ①천주의 모후Cu.-후 2시30분
 7. ①성전 신축 봉헌금 수입구좌(1구좌: 100만원): 조장년3, 이용
선3, 박민세3, 소계: 9구좌, 총계: 267.3
②성전신축 봉헌금 납부: 박한석100만, 조장년100만, 이규현
100만, 유문자31만, 김현정10만, 이기권10만, 익명10만, 이생
구10만, 전수연10만, 서명래10만, 진인순10만, 조재웅5만, 전
숙자5만, 김광춘2만, 김덕립2만, 김수남1만, 이경성1만
소계: 4,170,000원, 총계: 36,814,700원
 8. 감사드립니다: 안정숙씨 폐유 20통 및 2만원 봉헌

□ 지난해 봉헌금: 1,830,380원 □ 교무금: 2,819,000원